

유화업계, 그린뉴딜 정책에 화답

“친환경이 살 길” 투자 본격화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 포함

효성 수소경제 활성화 박차

1.3만톤 규모 액화수소 공장 설립

현대오일뱅크 태경비케이와 MOU

탄산칼슘 제조기술 상용화 협력

환경오염원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유화업계에도 ‘친환경’의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그린 뉴딜’이 일자리 창출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검토한 끝에,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내달 중 그린 뉴딜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이같은 결정과 함께 유화업계에서도



효성중공업이 2018년 건립한 울산 북구 경동 수소 충전소. /효성

친환경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탄소 섬유 투자에 이어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까지 설립하기로 하며 수소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성은 앞서 지난해 8월 전주 탄소 섬유공장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소섬유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 2028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연산 2만4000톤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효성은 이어 린데그룹과 함께 울산 용연공장 내 부지 약 3만여㎡에 연산 1만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2022년 완공하기로 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수소는 기존 탄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며 “효성이 추진하는 액화수소 사업의 핵심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가 향후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도 원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부산물을 제품화하며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태경비케이와 탄산칼슘 제조기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1년 하반기까지 300억원을 투자해 연산 60만톤 규모의 생산공정을 완공할 계획이다.

탄산칼슘은 시멘트 등 건축자재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기초 소재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SK넥실리스, 6공장 증설 투자 조기결정

1200억 투자, 9000톤 규모 공장 빠르게 성장하는 동박 시장 선점



제 6공장이 들어서는 SK 넥실리스 정읍공장 전경. /SKC

SKC의 동박 제조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제 6공장 증설 투자를 조기에 결정했다.

SK넥실리스는 1일 전라북도 정읍시와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 핵심 소재인 동박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1200억원을 투자해 오는 8월 정읍공장에 연산 9000톤 규모의 제 6공장을 착공한다. 오는 2022년 1분기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6공장이 가동하면 SK 넥실리스의 동박 생산능력은 5만2000톤으로 늘어난다.

이번 투자결정은 빠르게 성장하는 동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동박 시장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함께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동박이 쓰이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25년

까지 매년 40% 수준으로 성장한다. 특히 SK넥실리스가 생산하는 6μ 이하 극박 동박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SK넥실리스는 공급 부족이라는 시장 특성과 기술력 경쟁 우위 등을 고려해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초 4공장 증설을 마치고 3만4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SK넥실리스는 지난 3월 5공장 증설 계획을 밝히고, 2021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9000톤 규모의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여기에 6공장을 완공하면 생산능력은 5만톤 이상으로 늘어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U+ “신혼부부라면 2년간 모바일·인터넷·IPTV 54만원 할인”

결합상품 ‘U+신혼 플러스’ 출시

LG유플러스는 신혼부부에게 콘텐츠 시청,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합상품 ‘U+신혼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U+신혼 플러스’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나 혼인 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가 모바일·인터넷·IPTV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넷플릭스 시청 및 주문형비디오(VOD) 월 1만원 쿠폰과 모바일 두 번째 회선 요금 반값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 상품이다. U+신혼 플러스

이용자는 동일한 구성의 상품을 이용하는 타 이용자 보다 2개월 동안 54만 2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신혼 플러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1명이 ‘5G 스마트(월 8만 5000원)’ 이상의 모바일 요금제를 이용하고, 최대 전송속도 500메가비피에스(Mbps)를 제공하는 인터넷과 U+tv의 ‘프리미엄 넷플릭스 HD’ 상품을 함께 사용하면 된다.

기존 결합상품은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신혼 플러스’는 종이청첩장, 예식장



모델들이 결합상품 ‘U+신혼 플러스’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계약서만 제출하면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도 결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김나인 기자

현대오일뱅크, 20년만에 업계 2위 발돋움

SK네트웍스 주유소 300여개 인수 하루 2만 배럴 고정공급 채널 확보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를 새로 인수하며 20여 년만에 업계 2위로 발돋움하게 됐다.

현대오일뱅크는 1일 SK네트웍스 주유소 300여 개의 운영권을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과 임직원들은 인수 주유소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오천주유소를 방문해 영업 개시를 기념하고 일일 주유원으로 활동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한화에너지 플라자 주유소 1100여 개의 운영권을 인수해, 업계 3위로 올라선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 인수 후 현대오일뱅크의 전국 주유소는 2500여 개로 늘어, SK(3100여 개) 다음으로 많다.

지난해 SK네트웍스의 주유소 매각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SK네트웍스의 자산을 코람코자산신탁이 인수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주유소를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대오일뱅크



1일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사장이 SK네트웍스로부터 인수한 서울 강남구 오천주유소를 방문해, 일일 주유원으로 활동하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시장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이번 인수로 제품 공급 채널을 늘리면서, 동시에 판매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하루 2만 배럴의 고정 공급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인수 주유소의 절반 이상인 159개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수도권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열세했던 현대오일뱅크의 주유소 갯수가 기존 591개에서 750개로 27% 늘었다. 거주 및 유동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주유소 대거 확보를 통해 매출은 물론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SKT-독립기념관, 에코뮤지엄 구축 맞손

5GX 기반 AR·VR 콘텐츠 개발

SK텔레콤은 독립기념관과 ‘5G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의 AR·MR 에코뮤지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부장과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5GX 기반으로 환경·사람·역사가 함께하는 AR·VR 콘텐츠 개발을 통한 에코뮤지엄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하기로 했다.

에코뮤지엄은 환경과 박물관의 합성어로 문화, 역사, 자연환경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보존·육성·전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다.

이번 협약은 SK텔레콤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ICT기술과 독립기념관의 풍부한 콘텐츠 및 자연환경 인프라를 활용해 독립기념관을 혁신적인 역사 체험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왼쪽)과 SK텔레콤 유영상 사업부장이 협약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우선 SK텔레콤과 독립기념관은 실감형·체험형 콘텐츠를 갖춘 5GX 기반 역사 테마 복합문화 체험관을 구축해 기존 박물관·기념관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체험관은 SK텔레콤의 가상공간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에 있는 독립운동 거점을 인물과 에피소드를 연계한 증강현실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실제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듯한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실감형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T, 온라인 콘서트서 3D 혼합현실 공연

SK텔레콤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슈퍼주니어 온라인 콘서트에서 3D 혼합현실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콘서트에서 선보인 공연은 지난 4월 말부터 가동한 혼합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 라이브 공연에 적용한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점프스튜디오에서 슈퍼주니어 최시원씨를 106대의 카메라로 한시간 동안 촬영 후 단 하루만에 3D 혼합현실 콘텐츠를 완성했다. 점프



공연 중에 무대 뒷편에서 슈퍼주니어 최시원씨 3D 혼합현실 이미지가 공연장을 채우고 있다. /SK텔레콤

스튜디오의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 12m 크기의 고해상도 혼합현실 이미지를 공연장과 어우러지도록 제작했다.

/김나인 기자